

소비자 운동, 그 보람 이야기

박해경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기획실장

‘전문직 여성’ 활동에 대한 글을 청탁 받고, 먼저 내가 ‘전문직 여성’ 인가를 꿈——꿈이 생각해 보았다. 소비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문직 여성으로 여겨지는 것은 지난 20여년간 즐기치게 소비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그 중에 상당부분이 법이나 제도의 뒷받침을 받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소비자 운동가들, 주로 여성들이 미약하나마 우리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 힘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보니, 다름아닌 ‘개개인의 신념’과 ‘네트워킹을 통한 협동’이 아닐까 한다.

10여년전 쯤, 한 지방도시에서 내가 소비자 운동에 참가하던 초창기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슈퍼마켓을 위시한 몇몇 매장을 다녀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식품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그래서 가공식품이 유통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전반적인 유통기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사를 계속하고, 그 결과가 지역방송에 방영되게 되자 문제된 몇몇 제품들의 판매량이 급속히 줄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나와 가까운 모 인사를 통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하며, 공연한 해코지를 당할 지도 모르니 이정도 선에서 자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다. 나는 신앙적인 면에서 그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다고 다짐하면서도, 어린 아이들이 있는 나로서는 한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조심하며 버텨보기로 결심하고, 그래도 서울에 보고

는 해야겠다고 생각되어 전화를 하니 소비자 운동의 선배님은 웃으며, “소비자 운동 제대로 하는 구만! 굽히지 말고 계속해요”했다. 용기를 얻어 계속 조사 발표를 해 나가자, 그 후엔 공연히 시비를 거는 경우도 없어지고,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거의 매장에 진열되지 않았다.

근간의 일로서는 유전자 조작식품(GMO)의 표시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돌아왔고, 외로운 투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식품 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미국 소비자연맹의 마이클 한센 박사를 초빙하여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발표케 하므로써 전문적인 정보를 가지고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국내외적으로 다각적인 네트워킹을 계속하였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관심을 가졌지만, 이들이 모여 매우 강한 힘이 되었으며 급기야는 표시가 제도화 되었다.

소비자 운동의 현장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운동이 매우 원칙적이고 철저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우리 여성들은 소비자 운동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어느 한 부분의 잘못 된 점을 바로 잡아가는데 적격이며, 그 위에 현대적 영향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 국내외적인 네트워킹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